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2025 성경통독 및 퀴즈대회(8/30 단체 및 개인전 필기 시험, 8/31 개인전)
 - 선교사 자녀 선교대회 후원 행사(주일8/31, 9/7, 9/14)
 - 은혜 평생 대학 가을학기 개강(9/3)
 - 국제총회(9/9~12)
 - 그룹장 모임(9/23)
 - 성도양육과정 개강(9/24)

가정교회 예배안 2025. 8. 31

8월 다섯째 주: 불행이 청산되는 비결 (요한복음 5:1-15)

■ Welcome

내가 진짜 힘들때 도움을 주었던 친구 또는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요한복음 5:1~15

베데스다 연못 가의 38년 된 병자이야기

■ 서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상한 심령이 위로와 치유를 얻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은 행복해진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불행은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며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 그러나 불행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오직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불행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며, 그 결과 축복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불행은 행복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오늘 본문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며,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장면이다. 그곳에는 전해 내려오는 소문에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여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 그는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절망 속에 살았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절망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셨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과 동시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행이 사라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건강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불행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관찰 질문: 불행이란 무엇인가?

해답 1.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불행이다(7절).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했으나, 그를 넣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육신의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은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까지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다.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몸이 불편해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을 찾아가셨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으며,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누가복음 7:34b)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을 지켜주신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떠난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신다.

우리 주님도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다.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렇게 멸시당하고 외면당하신 이유는 이렇게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신다.

✿ 적용 질문 1

- 1) 혼자 외로움, 두려움 등에 잡혀 있을 때나 ‘나 혼자 밖에 없구나!’ 라고 느낀 적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처럼, 나는 어떻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해답 2. 자기를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14절).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나님은 소돔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롯의 가족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롯은 사위들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자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니,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한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셨다. 자신을 모르면 교만하고, 결국 망한다.

(요한계시록 3:17b)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사도행전 9:4)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온다. 바로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 적용 질문 2

- 1)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좋아하고, 중심으로) 살아왔습니까?
- 2)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내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해답 3.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불행이다(13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불행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한계시록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다.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성공을 자랑해도, 예수를 모르면 가장 큰 불행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했다. 이처럼 예수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복이다.

(마태복음 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린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는 마침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증거한다. 참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다.

✿ 적용 질문 3

- 1)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나누고 있습니까?(혹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 2) 그 나눔을 통해 경험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어 봅시다